

“교류행사가 지속되어 두 지역 발전 도모해 주길”

무주군, 의왕시 어린이 초청 무주 태권도원, 반디랜드 등 체험

무주군은 7일 자매도시 경기도 의왕시 어린이 30여 명을 초청해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투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자매결연을 맺은 두 지역이 우의를 다지고 무주를 알리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오전 11시 경 무주 반디랜드에 도착한 의왕시 어린이들은 곤충박물관과, 3D 입체영상관 등을 체험했으며, 오후에는 태권도원을 방문해 태권도 박물관을 둘러보고 시범공연 관람과 태권도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의왕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즐길만한 체험거리들이 다양해서 놀랐다”라며 “의왕시와



무주군은 7일 자매도시 경기도 의왕시 어린이 30여 명을 초청해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투어의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 어린이들의 교류행사가 앞으로도 지속이 돼서 아이들이 우정을 쌓고 나아가 두 지역 발전

도 도모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군수 황인홍)과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지난 2012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매년 두 지역을 오가는 교류행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두 지역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은 반딧불축제 참관과 반딧불지거대장터 방문, 태권도 시범단 및 오케스트라 상호 문화교류 및 학생들의 현장체험을 진행해 오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며 상호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김영우 대외협력 팀장은 “지역 간 자매결연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에 도움을 주는 절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오늘 무주에 왔던 어린이 손님들이 무주의 오랜 팬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경찰, 어린이 교통사고ZERO 캠페인

남원경찰서(서장 함헌배)는 최근 남원 인월초등학교 정문에서 남원교육지원청, 남원시청, 인월초 교사 및 학생대표단,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와 함께 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스피커를 내 30km/h이하 서행, 학교 주변 주·정차 금지 등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피케팅 활동을 벌였다. 또한, 미리 제작한 전단지과 학용품, 물티슈 등 준비해 홍보용품을 배부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는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여부를 당부하고 진로변경 시 깜빡이 켜기, 음주·과속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교통안전캠페인을 펼쳤다. /남원=김기두 기자



NH농협은행 남원시지부, 슬기로운 금융교육 실시

NH농협은행 남원시지부(지부장 박노현)는 7일 중앙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6번째로 진행된 금융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올바른 금융습관을 기르기 위한 체험형 교육으로, 용돈의 개념과 종류, 돈모으기, 돈쓰기 등 합리적인 용돈관리 방법의 기본개념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어린이들은 금융보드게임을 통해 용돈기일장을 직접 작성하는 등 체험과 금융을 결합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박노현 지부장은 “어린이들이 소비 등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교육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교육지원청

‘임실 배움과 성장의 수업나눔 한마당’ 진행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정나영)은 지난 1일 중등교원 수업나눔한마당을 시작으로 6일 유·초등 2019 임실 배움과 성장의 수업나눔 한마당을 운영하였다. 수업나눔 한마당은 수업, 교육과정 및 생활교육 등 학교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교사의 내적 동기를 회복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관내 유초중학교에서 실천해온 교육 활동 사례 중 ‘혁신학교 운영, 디지털 교과서 및 영상 활용, 자유학기제 및 프로젝트 영어 수업등 12개의 주제로 발표하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무주군선관위,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 홍보캠페인 실시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태관)는 최근 덕유산 향적봉 등지에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지정해 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후원받는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기탁금의 경우 후원금 기부가 금지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카드포인트로만 기부 가능한데다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기부를 할 수 있다. 정치자금의 후원이나 기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063-322-1390)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신덕면 이진수, 어려운 유아에게 신발 나눔

신덕면 사기마을 이진수 이장은 최근 관내 저소득 가정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새신발 30켤레(100만원 상당)를 신덕면에 기탁했다.

이진수 이장의 이웃사랑 나눔활동은 13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관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성금을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하여 지원하고 있고, 아동들을 위한 신발 나눔도 계속되고 있어 훈훈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다문화 가정인 신모씨는 “그렇지 않아도 아기가 돌이 지나고 겨울이 되니 외출할 때 굵기도 해서 신발이 필요했는데 고맙다.”면서 기뻐했다.

신덕면은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의 유아를 선정하여 신발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내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지를 실천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연중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대형판매시설·숙박시설과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는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 가능 하다.

전북도내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 돼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변기호 방호구조과장은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지만, 단 1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게 시설 관계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관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안전캠페인 실시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규성)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관계기관 합동 안전캠페인을 오는 9일 덕유산국립공원 구전동탐방지원센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11월 안전점검의 날 일환으로 실시되며,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무진장소방서(구전동지역대) 합동으로 탐방객 심폐소생술 교육,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통제구간 홍보, 취사 행위 금지 홍보 등 안전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캠페인과 더불어 시설물 점검, 재난취약지구 점검 등 안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성덕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시설과장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예방과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 취사행위를 하지 않는 등 탐방객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천사들의 하모니’ 무대에 서다

진안군은 7일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로 구성된 ‘천사들의 하모니’가 완주군 소재 마음사랑병원에서 주최한 마음사랑축제에서 우수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천사들의 하모니는 우쿨렐레를 배우는 회원들의 모임으로 매주 수요일 전문강사에게 악기를 배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마음사랑축제는 전북지역 정신건강 유관기관에 소속된 입소·이용회원과 그 가족들 250여명이 모인 행사로 천사들의 하모니는 ‘나상에 가면’과 ‘사랑하는 마음’ 등 두 곡을 멋지게 연주했다.

또한 이날 등록회원 3명은 성실한 직업생활과 꾸준한 재할참여를 인정받아 직업재활상과 정신건강증진상을 수상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